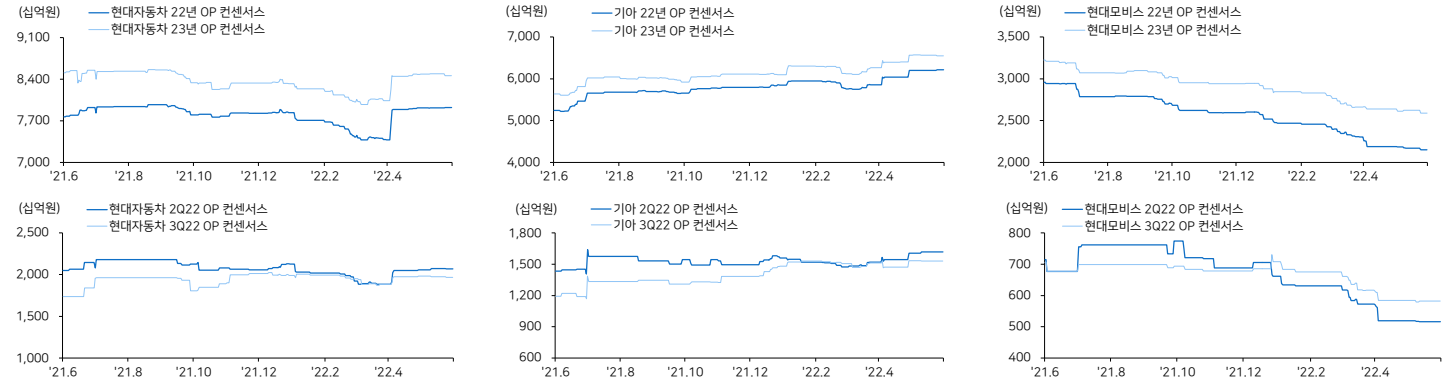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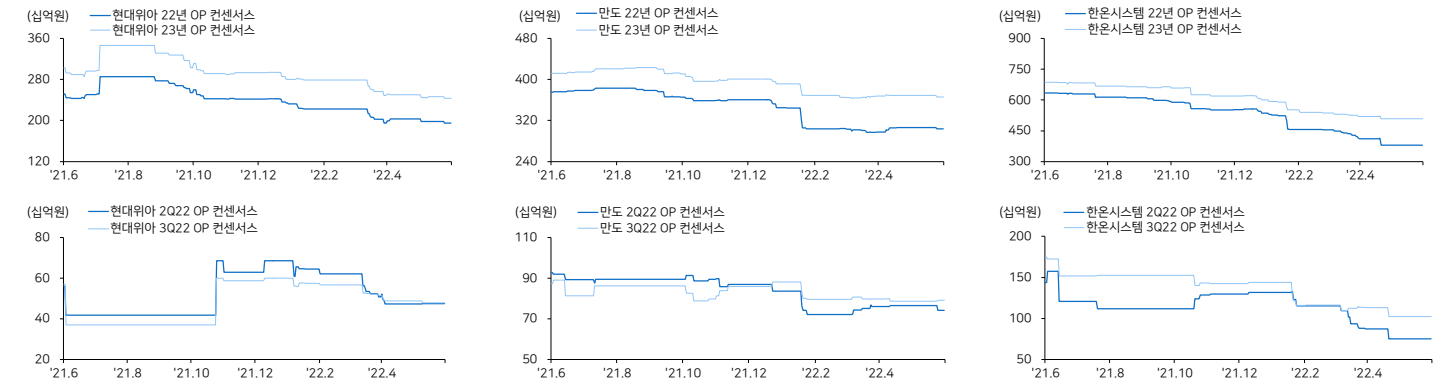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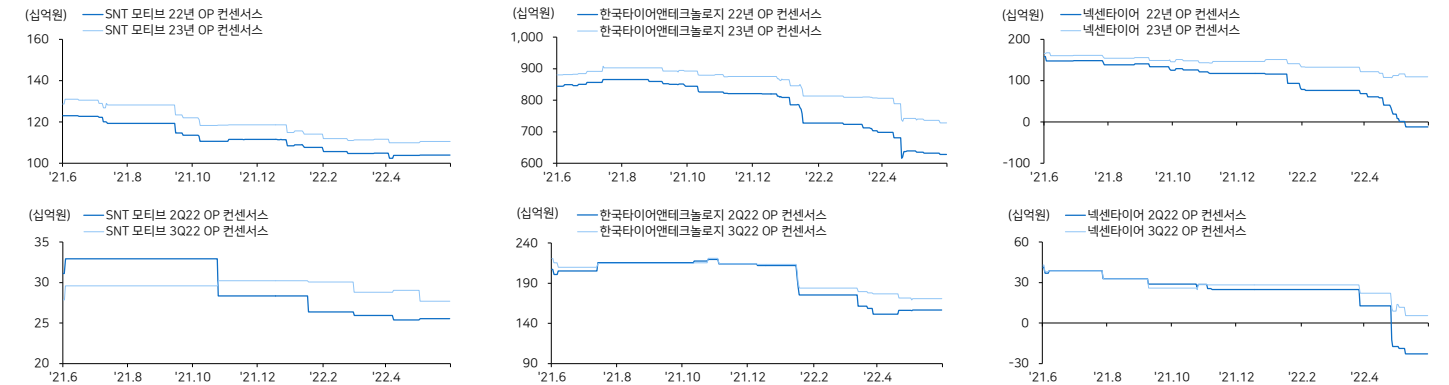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美서 또 300만~800만원 오른 전기차... 판매사 '제조비용 줄여라' (조선일보)

미국 자동차데이터 회사 KellyBlueBook에 따르면 5월 기준 미국 시장의 전기차 평균 가격은 64,338달러(8,310만원)로 yoy +14.6% 상승. 전체 차량 평균가격이 47,148달러(6,09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기차는 약 27% 비싼 수준.  
<https://bit.ly/3bj631b>

### '러 공장, 가동 않고 놔두면 안류된 편' 속타는 재계 (동아일보)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24일 해외의 출자 비율이 25%를 넘는 기업이 현지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러시아 정부가 자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 법안을 1차로 통과. 2-3차 심의에는 시간이 더 소요되나, 러시아 정부의 현지공장 가동률 상승 압박이 예상된다.  
<https://bit.ly/3n73E60>

### New vehicle prices surge, but there's no shortage of buyers (Automotive News)

Cox Automotive와 Moody's Analytics는 5월에 새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상 최고인 \$55,821로 추정했으며, 이는 미국 가계 중위소득 \$70,284를 기준으로 연간(52주) 41.3주에 해당하는 소득을 차지.  
<https://bit.ly/3bk1QwI>

### Apple hiring for car software engineer position in China (CNEV)

Apple은 중국에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공급업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분석. Apple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https://bit.ly/3y6UV08>

### 늘줄 알고 쓸줄 아는 A세대... 명품·전기차 시장의 50% 장악 (조선일보)

아이오닉5를 선택한 고객 중 50대(31.1%), 40대(27.6%)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당초 전기차를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여겼지만 실제 구매 고객은 구매력이 강하고 학력이 높은 4565세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https://bit.ly/3xJOG0k>

### 경형 전기차, 주행거리 극복하고 출시되나 (뉴스토마토)

올 하반기 현대차 캐스퍼의 전기차 제작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짐. 양산모델은 2024년 하반기쯤 생산될 것으로 관측되며, 주행거리는 200km 안팎, 가격은 3,000만원대로 전기차 수준에서는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bit.ly/3xE0di9>

### EV stocks soar as China studies 'extraordinary' policies to stabilize manufacturing growth (CNEV)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전기차 관련주가 월요일 중국 산업 규제 당국이 새로운 지원 정책을 암시하면서 급등. 중국 공업정보화부(MIT)는 제조 부분의 성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새로운 단계의 특별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https://bit.ly/3OoUL9K>

### The latest numbers on the microchip shortage: Cuts in Asia drive weekly chip losses (Auto News)

지난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계획 감소분은 27,700대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주 전의 감소분인 20만대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이며, 올해 누적으로는 226만대의 차질이 감축됨.  
<https://bit.ly/30lqnNG>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